

지역 소식통

정읍시, 연말정산 시즌 기부 인증 이벤트 실시

정읍시가 연말 정산을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총 4주 동안 정읍에 기부한 참여자들에게 연말 정산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원 이상 기부자들 중 정읍시 공식 SNS채널 구독자 100명을 추첨해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기부는 고향사랑기부금과 NH농협은행 방문 등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당첨될 경우 한우, 생차차, 단풍미인 쌀 등 총 3만원 상당의 특별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응모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완료 화면과 정읍시 공식 SNS 채널 구독화면(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캡처해 SNS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12월 22일 공식 SNS에 공개된다.

모급된 기부금은 다양한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기차 구매지원 13억원 추가 민간 보급

부안군은 중앙부처 발표행정으로 전기차 구매지원 보조금량 70대분 예산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달 17일부터 제4차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전기차 94대(승용 38대, 화물 56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추가예산 12억 8200만원을 확보해 전기차 70대(승용 40대, 화물 3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87기를 신규 설치중이며, 관내 거점 지역에 230기(급속 66대, 완속 164대)의 충전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 접수기간은 12월 15일까지로 차량 신청 시 조기미달될 수 있으며, 사업안내 및 보조금 준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자체 · 공공우수 야영장 선정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문체부 · 관공공사 주관 전국 대표 캠핑장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 지자체 · 공공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하는 지자체 · 공공 우수야영장은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 공공 우수야영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 △무장애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 야영장을 추천받아 분야별 특화 콘텐츠 운영 여부와 안전 · 위생 기준 등 전문가의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이중 가족 친화 분야에 선정된 국민여가캠핑장은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 이글루 등 다양한 캠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캠핑장 주변에 가족단위(어린이)의 캠핑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관장과 분수소를 볼 수 있는 음양분수

실개천 · 발담늪 등 물놀이 시설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천사하어로스 · 시립박물관, 수상레저시설 등과 같은 놀이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가족친화형 캠핑장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국민여가캠핑장을 포함한 공공 우수야영장에 분야별 우수 등락야영장 현판을 수여하고, 소개글을 관광공사의 고캠핑 누리집과 고캠핑 SNS 등에 게재해 향후 1년간 홍보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국민여가캠핑장은 가족단위 캠핑객들이 찾는 힐링 여행의 1번지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더 많은 캠핑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형우 부시장은 지난 16일 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과 예결위 소위원인 이원택 김제 · 부안)국회의원실을 방문해 2024년 국가예산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반영 요구 등 분주한 활동을 펼쳤다.

“삭감된 계속사업 예산증액 반드시 필요”

정읍시 김형우 부시장,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찾아

정읍시가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

김형우 부시장은 지난 16일 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과 예결위 소위원인 이원택(김제 · 부안)국회의원실을 방문해 2024년 국가예산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반영 요구 등 분주한 활동을 펼쳤다.

김 부시장은 정읍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사업 등 지역 발전에 대비가 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규사업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삭감된 계속사업의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별로 당위성 논리를 적극 피력했다.

특히, 시민의 숙원사업인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사업과 삭감 · 미반영된 R&D 사업의 예산반영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예결위 예산 심의단계에 중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 지역정치권 · 한우인사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최종 국가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중소벤처기업인증원, ESG경영 활성화 협약 체결

ISO 인증심사비 감면 우대 등 관내 기업 ESG경영 활성화 적극 지원

부안군과 중소기업인증원은 지난 17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부안군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정석 부군수, 임진영 중소기업인증원 원장 임태순 인증개발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의 ESG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부안 관내 기업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은 협약에 따라 관내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분위기 조성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인증원은 관내 기업에 ISO 인증심사비 감면 우대 등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ESG경영이 기업활동의 주요 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농업법인 설립 · 세법 등 청년창업 활성화 교육 추진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6일 관내 청년농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창업에 필요한 농업법인 설립 절차, 농업관련 세법, 회계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이 이뤄졌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법인설립 유형에 따른 법인 선택, 설립 절차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농업법인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품질에 따라 유통채널을 다양화 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품질 관리, 브랜드 개발 등 농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청년농업인의 경우 유리한 점이 많다.

또한 최근 농업분야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제 혜택 등 변경된 부분에 대

해 인지하고 농업경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경영교육을 배워 농업에 활용하여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농업인 맞춤형 특화 교육을 진행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처가능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4개 기업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정읍시에 소재한 대풍년 영농조합법인, 힘찬마루, (주)호암엔지니어링, (주)이텍이 2024년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중 전통 · 가공식품과 공산품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지사 인증상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지사는 매년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선정해 품질을 인정하고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풍년 영농조합법인의 ‘고추야끼 고춧가루’는 100% 국산 견고추만을 사용해 생산하는 고춧가루로, HACCP 인증 가공 설비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위생요소를 중점 관리하며 생산되고 있다.

힘찬마루(소성특화농공단지)의 ‘와우진액 오리지널’은 달걀이, 동충하초, 뽕잎 등 20여 가지의 한방재료를 배합해 30시간 저온추출기술로 우려내는 진액으로, 미국 식품의약품(FDA)인증과 국내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취득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주)호암엔지니어링(태인농공단지)의 Z-COOLER(이동식 에어컨)은 도내 유일 이동식 에어컨 제조업체로 개발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위한 포인트 냉방기구 제조업체다. ISO 인증 등을 통해 자체 수급과 제조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이텍의 ‘접이식 경량 카본 롤레이터’는 고령자 재활치료 요구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근 · 골격 기능을 보조해 신체이동을 지원하는 이동기기로, 높이조절, 브레이크 고정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